

오늘의 온도

THE TEMPERATURE OF TODAY

우리의 오늘은 무수히 많은 온도로 채워져 있다.

Space°
공간의 온도

이른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Time°

시간의 온도

소소하게 즐기는 짧지만 달콤한 여유

Conversation°

언어의 온도

해질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



Relationship°

관계의 온도

맞닿은 손, 그 사이로 흐르는 온기

LIVE ON FEVER

공간의 분위기와 시간의 흐름, 사람과 사람의 감각적 접촉 사이에는 언제나 온도가 존재한다. 냉온의 수치적 범위를 벗어난 온도는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된다. 그리고 그런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열'이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향하는 열의 흐름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깨닫는다. '온도'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축으로 이해하고, '열'이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 FEMON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용자 중심의 사고와 공감으로 서로 다른 생활 속의 온도,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보다 가깝고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솔루션을 꿈꾸며.



FEMON

Change the idea of
temperature

시선의 온도를 바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를 미세한 온도차로
감지하곤 한다. 인류의 생활에 '온도계'라는 발명품이
끼친 영향력만으로도 '온도'에 관심을 가지고 '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EMON은 그 이상을 지향
한다. 단순히 '온도'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변화에 반
응하는 과정을 뛰어넘는다. 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
발자와 제조사, 디자이너가 개인이 가진 경험을 공유
해 제작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사고하며 사
용자와 정서적 공감을 나눈다. 그 과정에서 FEMON은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들의 경험이 가진 가치를 바탕
으로 사용자가 더 나은 경험과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
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FEMON이 우리의 일상
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는 남다르다. 자신들의 열정
이 사용자의 생활에 온기로 다가갈 수 있음을 믿기 때
문이다.

얼마 전에 태어난 조카를 위해서 구입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열이 날 때도 많아서 이런 체온계가 필수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연동**으로 24시간 체온을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네요.

@star****
2018. 01. 03

아기 체온계 선택 기준이 뭔가요? 저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체온을 재야 하는데 측정할 때 소리가 나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밤에 아이를 깨우지 않고 특별히 부착 거부감 없이 **수시로 열을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가 바로 바나나체온계예요.

@smile*****
2018. 05. 01

바나나체온계 덕분에 이제 불침번은 안녕이에요!

@milee****
2018. 05. 01

일단 디자인부터 너무 예쁘고 촉감도 말랑말랑하네요. 아이가 **거부감 없이** 부착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열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수시로 체온을 체크 해야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ha79****
2018. 06. 04

작고 귀엽게 생겼지만, 정말 똑똑한 녀석이더라고요.

@dalcom****
2017. 10. 17

출산 준비물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체온계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필요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떠난 여행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될 것 같아요.

@yhoo****
2018. 06. 07

바나나체온계가 있으니 **스마트한 부모** 되기가 쉽네요. 어플을 통해서 아이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제품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choi*****
2017. 11. 07

엄마 마음을 딱 알아주는 체온계! 엄마에게도 잠깐의 쉬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돼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시간에도 체온 정보가 저장되니 유용하네요.

@sr****
2017. 12. 15

휴가를 떠나기 전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걱정했는데 여행 출발 전 바나나체온계랑 해열제를 챙긴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여행을 떠날 때마다 꼭 챙기는 **필수템**이 됐어요.

@avec*****
2018. 06. 15

아이가 한 번 아프면 엄마 멘탈이 휙청거리는데 바나나체온계 덕분에 이제 멘탈 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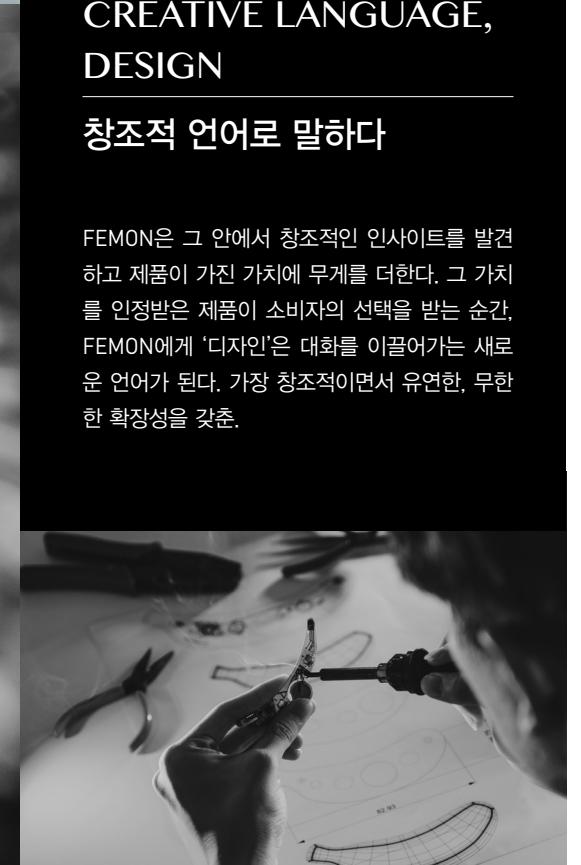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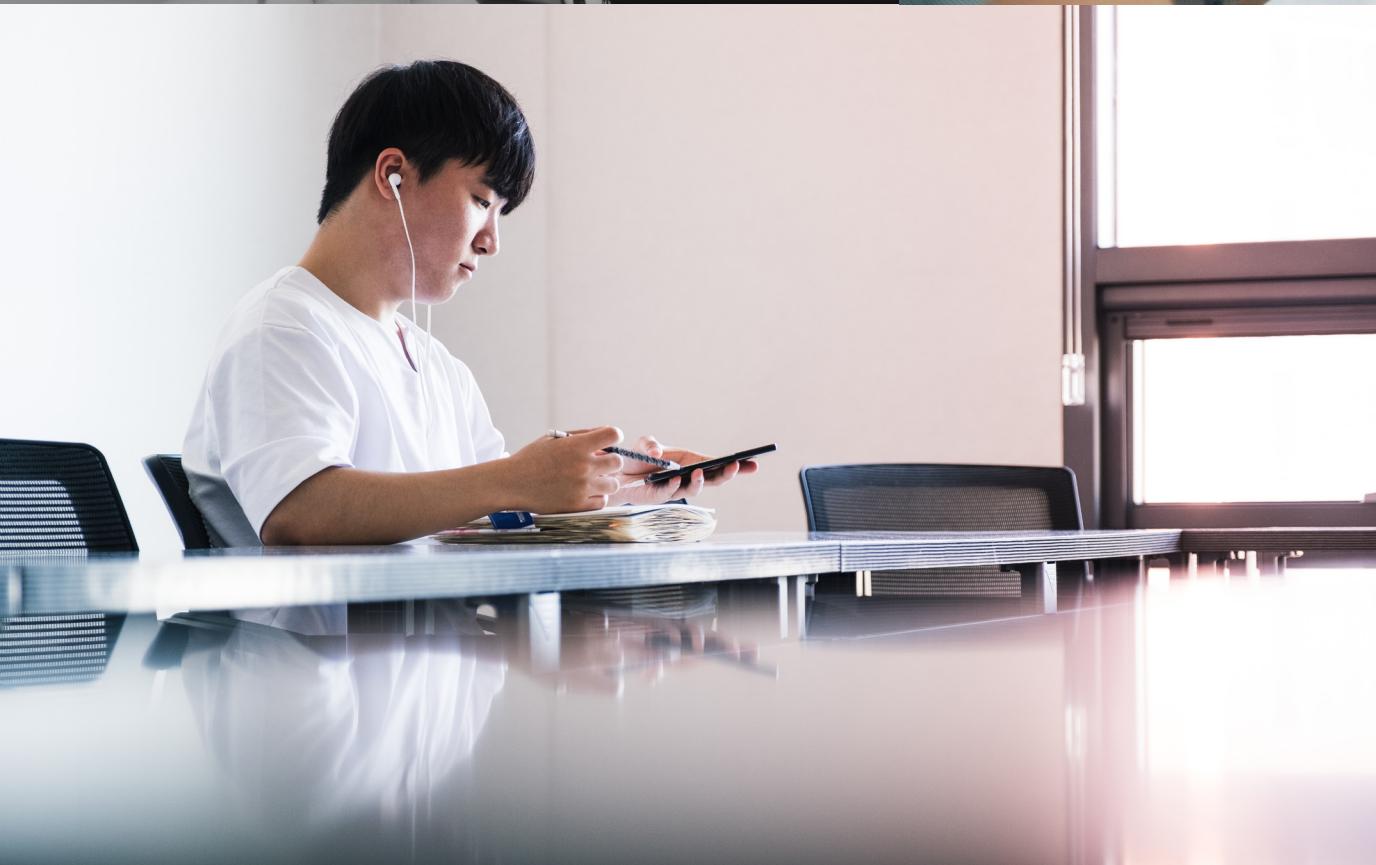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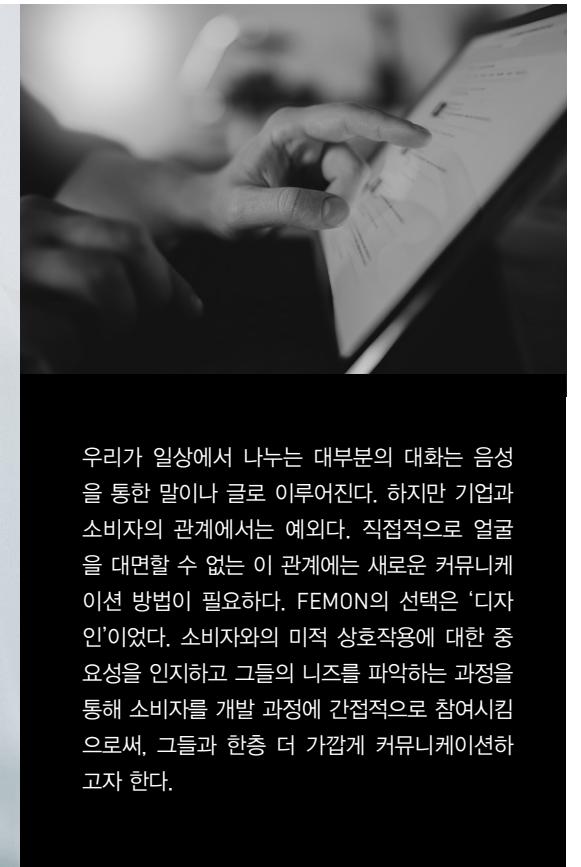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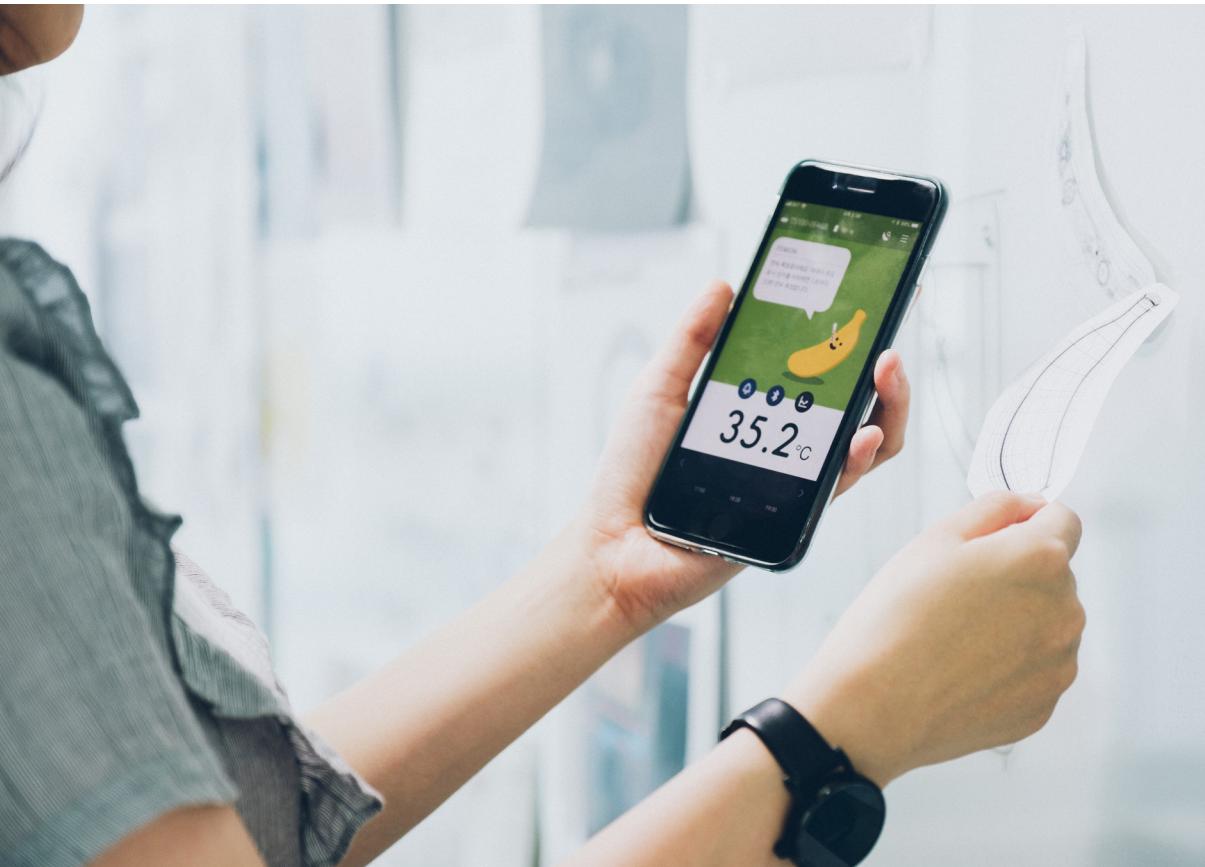
@rntmf****
2018. 06. 15

알아서 아이의 체온을 관리해준니까 정말 편하네요.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바나나체온계를 보고 하는 말 같아요.

@dalcom****
2018. 06. 21

열을 재려고 아이를 깨우지 않아도 되고, 고열 체크하며 아이를 케어하느라 엄마가 뜬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니 **엄마, 아이 모두에게 Win-Win인 제품**이에요.

@lid***
2018. 08. 30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부분의 대화는 음성을 통한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는 예외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이 관계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다. FEMON의 선택은 '디자인'이었다. 소비자와의 미적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를 개발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들과 한층 더 가깝게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한다.

CREATIVE LANGUAGE, DESIGN

창조적 언어로 말하다

FEMON은 그 안에서 창조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제품이 가진 가치에 무게를 더한다.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순간, FEMON에게 '디자인'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언어가 된다. 가장 창조적이면서 유연한, 무한한 확장성을 갖춘.



**측정을 넘어 관리 차원의 범위 확장으로
진정한 헬스케어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FEMON의 솔루션입니다.**

INTERVIEWER FEMON이라는 브랜드가 '열'과 관련된 솔루션에 집중하고 체온계를 솔루션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INTERVIEWEE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병이 바로 '감기'이며, 그 징조는 바로 '열'에서부터 인식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가 '열'이며, 모든 병이 '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와 같은 사고 속에서 FEMON은 첫 번째 솔루션을 '체온계'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체온계는 순간의 온도를 측정하는 범위에 머문다면 FEMON은 그 단계에서 기능을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측정을 넘어 관리 차원의 범위 확장으로 진정한 헬스케어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FEMON의 솔루션입니다.

INTERVIEWER FEMON의 첫 번째 솔루션인 체온계를 '바나나' 디자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INTERVIEWEE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라는 발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체온계는 화이트 컬러에 심플한 디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낯선 물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과일에 친숙한 감정을 느끼기에 과일이라는 오브제를 선택했고, 그중에서도 비비드한 컬러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가 신체에 부착하기 적합한 '바나나'를 제품의 디자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민간요법에서는 '바나나'를 열을 낮추는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렇듯 '바나나' 디자인은 사용자의 입장의 사고에서 도출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ER 첫 번째 솔루션 '바나나체온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INTERVIEWEE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보다 개발 과정 자체가 실험과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나나체온계를 개발하면서 출시 전에 전 직원이 체온계를 몸에 부착하고 산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회사 대내외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꾸준히 피드백 받고 적용했습니다. 특히 접착제의 경우 아이의 몸에 사용되는 것으로 더욱 더 많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접착제 실험을 하면서 한 직원은 체온계를 몸에서 떼어내다가 상처가 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접착겔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마침내 다양한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INTERVIEWER 타 헬스케어 브랜드와 FEMON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NTERVIEWEE 지금까지 '헬스케어' 영역은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헬스케어가 곧 '의료'의 의미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헬스케어를 전문직종에 의존하던 과거에는 보수적 성

향이 강했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개발할 때도 화이트톤을 사용하거나 차분한 컬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FEMON은 헬스케어를 전문인의 영역을 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전문 의존도를 낮춰 보다 쉬운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온계 제품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Yellow 컬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컬러와 흥미로운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기능적 측면과 시각적인 흥미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INTERVIEWER FEMON이 계획하는 앞으로의 솔루션은 어떤 방향인가요?

INTERVIEWEE 기존 체온계는 아이의 체온을 부모가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EMON은 어플을 통해 아이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1:N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등 한 명의 아이를 'N'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FEMON은 앞으로 지금은 1:N 형태를 넘어서 N:N의 형태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 입원한 여러 아이들의 체온을 여러 명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단순한 제품으로서의 솔루션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적인 차원에서의 헬스케어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언제나 그 솔루션의 방향이 사용자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FEMON' 디자인팀

Yeo Seungyun

여승윤 팀장

FEMON의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지향하는 대상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이들의 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일상과 소통에 대한 고찰을 거치며 더욱 확고한 방향성을 얻었다. 핵심은 간단하다. '경험'을 통해 사용자와 '공감'하는 것. 그렇기에 이들은 오늘도 사용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솔루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특별하고 창조적인 언어로, 사용자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서.



SMART THERMOMETER FEMON의 첫 번째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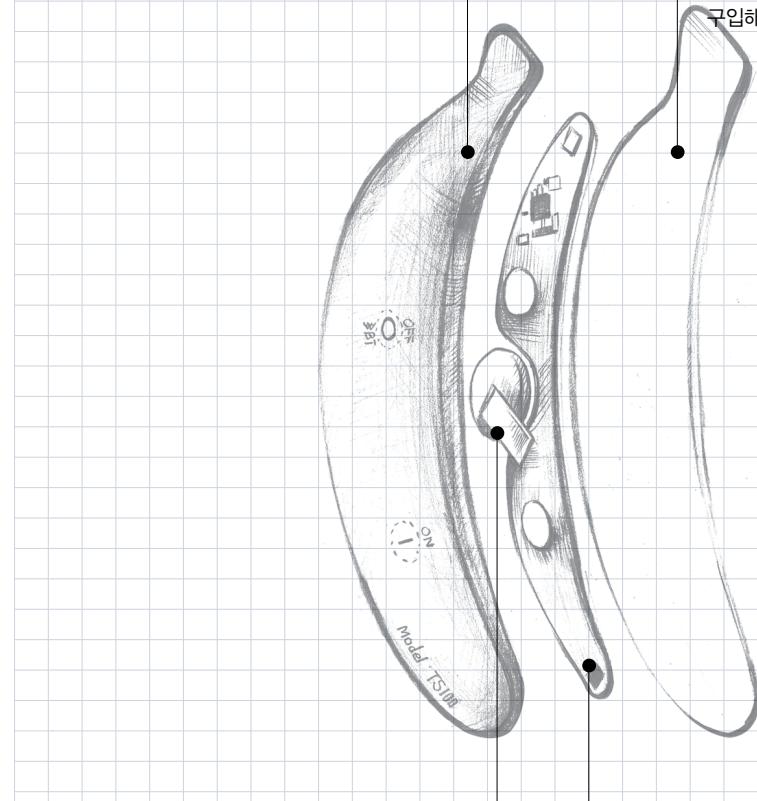
아이들은 예민하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에 불편함을 느낀다. FEMON의 첫 번째 솔루션, 바나나체온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불편함을 제대로 호소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변하자'. 아이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과 부모들이 쉽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결합해 발열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체온계와 달리 지속적인 체온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사용자를 위한 어플 연동 서비스를 더해 차별화된 제품을 완성했다. 겨드랑이에 부착하고 어플만 연동하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이 되었다.

Medical grade form & IPX7

바나나 형태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곡선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부드러운 품 소재로 되어있다. 심부와 가까운 겨드랑이에 부착할 때 가장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며, IPX7 인증을 받았으므로 땀을 흘리는 경우에도 이상 없이 작동 가능하다.

Hydrogel

바나나체온계에 사용되는 접착 표면은 생물학적 테스트를 완료했다. 수많은 검토 끝에 선택된 하이드로겔은 의료기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제조, 품질,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만족시켰다. 또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시 접착력이 약해진다면 별도로 리필킷을 구입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attery

장치에 On/Off 버튼이 있어 장치 Off 상태 기준으로 1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릴 때 온도 상승은 보통 2~3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체온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하지 않을 때 장치를 끄고 보관한다면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충전하거나 교체할 수 없지만 지속력이 강한 배터리므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Bluetooth

어플과 연동되는 블루투스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혹여나 잠든 사이에 블루투스가 끊겨있어도 바나나체온계가 체온 데이터를 저장한다. 어플과 연결된 순간 체온계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아이 체온을 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

누가 봐도 바나나다. 제품의 외형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체온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친근하다. 바나나니까. 노란색을 말할 때, 살짝 흰 곡선의 형태를 말할 때, 우리는 '바나나 같다'는 표현을 한다. 그런 바나나가 체온계로 탄생했다. 그것도 인체에 부착된 형태로. 무엇보다 친근한 바나나이기에 아이들은 거부감이 없다. 폭신폭신한 품 소재를 활용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고 몸에 붙일 때 일체감이 좋도록 휘어지는 형태로 개발된 바나나체온계는 아이들의 몸에 딱 붙어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24시간 지킨다. 그 덕에 부모의 시간도 조금은 유연해진다. 아이의 상태를 대신 전하고 부모를 편안하게 만드는 바나나체온계. 어쩌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나나체온계의 역할일지도.

BANANA THERMOMETER

바나나체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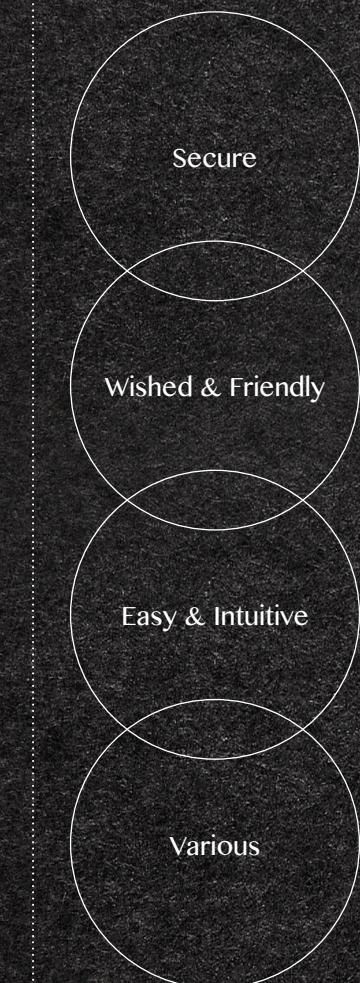
BRAND STORY FEMON의 이야기

FEMON expand the meaning of managing temperature to form a deeper bond with consumers.

헬스케어의 의미는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연장선인 헬스케어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다.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생명의 연장과 함께했고, 그런 의미에서 헬스케어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기술인지도 모르겠다. FEMON은 이제 그 길의 첫 발자국을 떴다.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의 첫 번째 헬스케어 브랜드로 시작된 FEMON은 체온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체온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확장해 체온을 '지킨다'는 방식의 접근은 FEMON이 소비자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키워드다. 아이 그리고 부모를 위한 바나나체온계로 시작된 FEMON은 이제 더 다양한 관계를 '온도, 체온'이라는 영감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FEMON의 제품은 아이와 부모라는 일대일의 방식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다수와 다수의 관계까지 확장될 것이다. FEMON이라는 브랜드의 무한한 가능성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속 모든 관계의 다양성에 비례하기도 한다. 부모와 아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그들의 첫 번째 솔루션이 그려졌듯, 앞으로 그들이 펼쳐갈 솔루션 또한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놓인 불편함을 해결하며 브랜드가 가진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다. 헬스케어의 발전이라는 목표 앞에서 다른 기업과 제품들이 걸어간 속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사용자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끝내는 조금 더 깊고 특별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FEMON이 꿈꾸는 관계이자 가능성이었다.

BRAND Core Value



FLOW INTO LIFE 삶으로 흐르다

그들이 제안하는 솔루션은 결코 인류의 위대한 진화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삶과 달아 있는, 조금 더 편안하고 다양하며 쉬운, 무엇보다 언제나 가까이에 있음을 강조한다.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점은 FEMON의 솔루션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다. 세상을 한 번에 뒤바꾸는 혁신보다는 삶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이끄는 것.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삶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흐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마치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며 온도를 변화시키는 열처럼.



수은 체온계

옛날에 흔히 쓰이던 막대형 체온 측정용 온도계다. 겨드랑이에 끼우는 체온계로 수은의 팽창을 이용한다. 온도를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부터 3분, 5분으로 나누어지며, 체온을 측정 할 때는 체온계를 수은구 쪽으로 털 듯이 흔들어 현재 온도를 리셋해 사용해야 한다. 수은구와 유리관 사이에 좁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 온도 측정 후에 한동안 수은주가 최고온도에 머물러 있어 체온 측정이 쉽다. 다만 아날로그 방식이기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수은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귀적외선 체온계

수은의 해로운 점들이 이슈가 되면서 요즘은 대부분 귀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는 적외선 방식의 체온계를 사용한다. 귀적외선 체온계는 적외선 램프와 적외선 감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외선을 귓속으로 쓴 후 반사되는 열을 센서로 감지해 파장의 변화를 온도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3초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어 체온을 측정할 때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귓속에 삽입할 때 비닐을 덮기 때문에 위생적이다. 순간적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측정의 차원에서 머문다는 아쉬움이 있다.

비접촉 체온계

공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열감지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여러 사람이 체온계를 사용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생기는데 귀적외선 체온계가 일회용 비닐을 통해 위생을 관리했다면 비접촉 체온계는 아예 접촉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특히 메르스가 유행하던 시기에 비접촉 방식의 체온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촉 없이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필터 교환이나 살균의 절차가 줄어들어 편리하다. 하지만, 신체 직접 접촉이 없기 때문에 측정치가 들쑥날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바나나체온계

바나나 형태의 체온계로 노란색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겨드랑이 중앙에 붙이는 바나나체온계는 신체부착이 용이하도록 곡선 형태를 지녔다. 또한, 순간적인 체온 측정이 아니라 신체 부착을 통해 24시간 체온을 관리한다. 단순한 측정의 범위의 차원을 넘어서 관리의 영역까지 확대된 제품이다. 신체에 직접 부착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지녔으며, 체온계를 휴대폰 어플과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도 있다. 어플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고열에 대한 위험도 바로 조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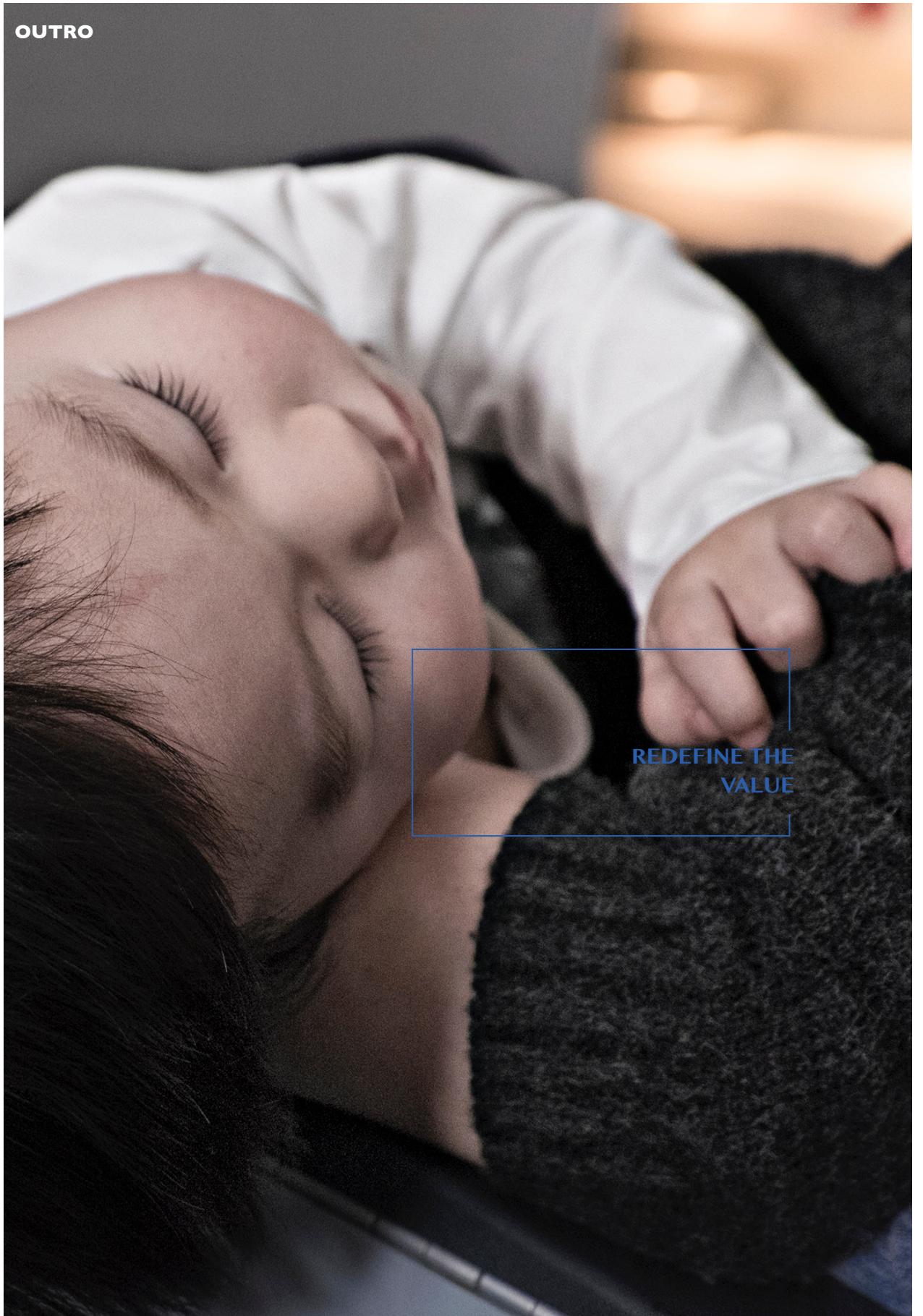
FINALLY, COME TOGETHER

마침내 하나가 되다

과학의 온도를 굳이 따지자면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에 가깝지 않을까? 이성과 감성의 사이에서 이성과 더 가까운 과학은 자식이라는 틀 안에서 고유의 온도를 가진다. 때때로 이성과 감성은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지극히 반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반대가 아니라 서로를 기대고 있는 거라고. 이성과 감성도 그렇다. 반대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츰 하나가 되어 여러 방면으로 나아가는 것일지도.

FEMON이 가는 길도 그 방향으로 흐른다. 과학의 목표점은 결국 사람에 있다. 이성에 가까운 과학이 FEMON을 통해 디자인이라는 감성과 하나가 된다. 그 둘의 시너지는 다양한 방향을 만들어 내며 마침내 더 많은 소비자와 마주할 수 있는 접점이 된다.





REDEFINE THE VALUE

가치를 재정의하다

온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감각은 상대적이지만,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인 그것.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끊임없이 변화와 순환을 반복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온도. 어쩌면 우리가 온도를 통해 느끼는 것은 삶이 지닌 가치와 무게일지 모른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시간과 공간에 집중할 때, FEMON은 그 사이에 놓인 찰나의 변화에 집중했다. 온도와 열을 통해 행복을 실감하고, 그것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심에 주목한 것이다. 직접 사용자가 되어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FEMON은 비로소 그들이 가진 온도에 대한 철학을 정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 철학의 의미는 FEMON의 행보를 통해 몇 번이든 재정의되고, 수많은 가치를 더해갈 것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변치 않고 분명한 것은 있다. FEMON이 지키는 것은 온도를 넘어서 삶 그 자체라는 사실.



LIVE ON
FEVER

F E M O N

Address.
075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207호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Web.
<http://www.myfemon.com>

E-Mail.
femon@lstgrp.com